

95.10.19

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주부들 절반이 “불이익”

한국부인회 전국 5백명 근로여성 의식 조사

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은 두명 중 한 명꼴로 똑같은 경력과 직급을 갖고도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런 사실은 한국부인회(회장 박금순)가 '남녀 고용평등의 달'을 맞아 전국의 취업주부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남녀고용평등법 시행과 근로여성의 의식'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.

18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실에 대한 물음에서 '똑같은 경력과 직급을 갖고도 남성보다 승진이 늦다'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4백59명 중 46.2%인 2백12명이나 됐다.

다음 '비정규직(임시직)으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'가 13.1%(60명), '가족수당이 직급수당에서 제외되거나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남자보다 까다로운

조건과 절차를 요구한다'가 5.2%(24명)였다.

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취업주부의 82%(3백76명)가 '언제부터 법이 시행됐는지 잘 모른다'고 응답했으나, '법 시행 이후 산전·산후 휴가제와 휴직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'(39%·1백79명)과 '임금의 격차가 좁아지는 점'(25%·1백14명)은 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했다.

반면 법 시행 이후 '신입사원 채용 때 평등하게 채용하려는 의지가 보인다'는 사람은 19%(78명), '승진의 기회가 남성과 동등해지고 있다'고 답한 사람은 8%(36명)에 지나지 않았다.

한편 한국부인회는 남녀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18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 회관에서 '여성의 사회진출 무엇이 문제인가'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윤영미 기자